

논산·부여·계룡센터 시·군·교육청과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협약식 법인 설립 4주년 기념식 갖고 활동평가도



▲협약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이사장 신형철)는 9월 15일 논산
 논취위딩홀 무궁화홀에서 논산시(시장
 황명선), 부여군(군수 이용우), 계룡시

(시장 이기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선규)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논산·부여·계룡은 농촌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결혼 이민자가 많고 다문화 가족에서 2세대들이 출생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논산·부여·계룡센터는 다문화가족에게 우리의 사법 시스템 및 기초 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빨리 우리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논산·부여·계룡 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센터 법인 설립 4주년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

운데, 법인 설립 4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그간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신형철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구조의 희생자이며,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며, "더욱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의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담은 6개항의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선포하기도 했다.

대구서부센터 대학생 봉사단 제1회 정기회의 및 단장 취임식 곽성호 이사장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에 힘과 용기가 되어 주길" 당부



▲곽성호 이사장이 이동열 초대 단장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곽성호)는 6월 1일 센터 사무실에서 '대학생 봉사단 제1회 정기회의 및 단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봉사단은 이날 취임한 센터 운영위원장 이동열 초대단장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멘토 역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집안일 도우미, 법정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기회의에서는 서승기 사무처장의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제도의 종류와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발

표를 시작으로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과 책임을 돌이켜보고, 단원간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 봉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곽성호 이사장은 "센터 설립 이후 지난 2년간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와 실적을 달성하면서도 어린 학생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볼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대학생 봉사단이 어린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활동 고령읍내 및 시장일대서 시민대상

대구서부센터는 6월 4일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박충근)과 함께 고령읍 고령읍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센터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의 신근철 생활지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고령읍 시장을 중심으로 사전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홍보활동 시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를 당했을 시 피해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및 무료법률상담,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각종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다.

대구서부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센터의 활동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생활지원위원장 및 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 · 구미센터 피해자 가족 『아동 · 청소년 자존감 형성 및 강화』 연령과 성별 기준으로 리더십 및 성교육 실시



▲리더십과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길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자존감 형성 및 강화』 프로그램을 2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 능력을 기르며 미래의 꿈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며 자아정체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교육(강사 이병희)과 성교육(강사 김현숙)으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1차는 7월 22일부

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8월 9일에서 11일까지 3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길노 이사장은 "최근 들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또한 "범죄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하여 피해자 아동,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조모임(Forever, 햇살그린) 단합대회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등

김천·구미센터는 6월 26일 경북 구미시 소재 금오산에서 피해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모임(Forever / 햇살그린)의 단합대회를 가졌다.

김천·구미센터의 자조모임은 강력 범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다시금 범죄의 상처와 고통에 홀로 맞서야 하는 피해자들이 유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월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이번 단합대회는 김천·구미센터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센터의 전태경 위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살 10Kg 12포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길노 이사장은 행사에 앞서 "이번 단합대회 통해 피해자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자조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 피해자들이 건강한 삶을 하루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및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victim.or.kr

밀양 · 창녕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촉식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 운영 통해 울타리 역할 수행



▲박형철 지청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밀양지청에서 장익근 이사장과 박형철(이사장 장익근)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집에는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 표창이 붙어있다.

지원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위촉식 및 교육,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90여명의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피해자 발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집에는 센터에서

제작한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이라는 표창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밀양·창녕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익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협약을 결성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우리지역의 불의의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박형철 지청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는 내 고장을 만들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어진 소양교육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영상 시청과 더불어 이성희 마인드디자인 컨설팅 소장을 초청하여 "함께 웃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사랑의 돌보미’ 출범 1차로 25가정 선정, 1운영위원과 1가정후원 체제 운영



▲ ‘사랑의 돌보미’ 운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운우)는 7월 12일 범죄피해자 가정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센터 상담위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돌보미’ 출범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랑의 돌보미’는 피해자 지원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센터 전문 상담위원과 범죄피해자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상담 및 생필품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진주센터는 1차로 25가정을 선정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진주센터는 2009년 하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정(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쳐 하동지역의 사업가로부터 부지(100평)를 지원받아 건축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센터 운영위원들의 지원금, 기부금을 바탕으로 현재 모자가 거주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축 중에 있다.

또 다른 ‘사랑의 돌보미’ 가정은 베트남에서 이민 온 결혼 이민자 여성으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못 이겨 이혼신청 후 쉼터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이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가장 절실한 부분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



▲피해가족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센터 상담위원장(대신정공, 대표이사 구재홍)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는 현재 성실히 일하며, 재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돌보미와 연계된 가정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격의 없는 오찬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진주센터는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센터와 결연을 통해 하루 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제천 · 단양센터 추석맞이 피해자 5가정 센터로 초청 명절 지원금 전달한 뒤 영아원방문도



(사)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한철웅)는 지난 9월 20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피해자 5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풍성하고, 살맛나는 추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을 센터로 초청하여 한철웅 이사장이 준비한 명절지원

금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전달식 이후에는 제천지청 장영식 지청장과 한철웅 이사장을 비롯한 지청, 센터 관계자들이 제천시 교동에 위치한 영아원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철웅 이사장은 “작은 나눔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영식 지청장과 한철웅 이사장이 명절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거창 · 함천 · 함양센터 무의촌 노인 대상으로 의료봉사 식사와 법률상담, 미용봉사 병행해

(사)거창·함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에서는 7월 3일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복지회관에서 무의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의촌 의료봉사에는 센터의 의료지원위원회(위원장 추교운/적십자병원장)를 중심으로

소속된 외과, 내과, 한의과, 피부과, 치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미용봉사를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주민들

이 무료 진료를 받고, 기관 단체장들과 지역 인사들이 제공하는 기념품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마을 주민 이재구씨는 “요즘 시골마을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어서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문을 하여 무료로 진료해주시어 어른들께서 매우 즐거워하십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어르신들이 무료 진료 후 링걸을 받고 있다.

이현덕 이사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더불어 정·합·천·함양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거창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gccvsc.or.kr

안양센터 센터·지자체·협력병원이 하나 되어 피해자지원 망화사건 피해자 생계비 및 병원비로 1400만원



▲이종찬 사무국장이 피해자를 병문안하여 안부를 묻고 있다.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병원이 하나 되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의에 빠질 수 있었던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찬호)는 7월 21일 피의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 시너 등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신체표면의 33%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생계지원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다.

안양지청의 연락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안양 센터는 자체적으로 치료비 200만원을 우선 지원한 후 환자가 입원하여 있는 한강성심병원의 사회 복지팀과 연계하여 치료비 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 측에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서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피해자 가정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안양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전국 연합회도

치료비 300만원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주지 근처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안양센터는 범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동부센터

시·군 지부 결성 및 사랑의 마음 전달식

피해자 4명에 지원금전달과 신규위원 소양교육도

(사)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응길)는 광주지방감찰청 순창지청(지청장 조주태)과 함께 지난 6월 15일 순창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군 지부 결성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군지부는 전남동부 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6개의 행정구역 내의 구석구석에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지부, 순천시지부, 광양지부, 고흥지부, 보성지부, 구례지부를 결성하여 신규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촉식에서는 순창지청 김희재 차장 겸사가 '센터의 역할과 위원의 임무'라는 주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주태 지청장과 정응길 이사장이 범죄피해자 4명을 초청하여 피해자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식도 병행했다.



▲조주태 지청장과 정응길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jnvc61.or.kr

남원·순창·장수센터

의료지원위원회 중심, 무료법률상담 및 의료봉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순창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무료진료를 받기위해 접수하고 있다.

(사)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고재훈)에서는 9월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순창다문화 가정지


원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엔 봉사활동을 나간 순창지역은 약

250명의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다르게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정착되고 있는 지역이다.

센터는 이날 전문의와 간호사들로 구성된 의료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의 의료상담 및 건강 상담과 더불어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 시집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

다. 한편 함께 봉사활동을 나온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을 하였지만, 아직 한국 이름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들에게 개명신청 접수를 도와주었다.

남원·순창·장수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호에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호와 지원 <http://www.kcva.or.kr>

발행처 :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orean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발행·편집인 : 이용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107호
전화 : (02)596-1295 팩스 : (02)3471-1295
메일 : kcva@kcva.or.kr